

## 병원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비난의 조절된 매개효과\*

최 미 라

하 정 희<sup>†</sup>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본 연구는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자살생각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자기비난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에 있는 병원 간호사들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회수된 245부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241부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통계처리를 위해 SPSS 22.0과 AMOS 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 내 괴롭힘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기비난이 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둘째, 자기비난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조절 역할을 하였다. 셋째, 직장 내 괴롭힘과 자기비난,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검증하여,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수준과 자기비난을 감소시켜주는 것이 자살생각을 낮춰주는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 자기비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자살생각

\* 본 연구는 제 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sup>†</sup> 교신저자 : 하정희,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222.

E-Mail : hajung366@hanyang.ac.kr

최근 'SBS 스페셜-간호사의 고백'에서 간호사들은 병원 내 태움 문화에 대해 피로움과 업무 스트레스 관련 내용으로 간호사의 근무 환경을 조명하였다. 병원 내 괴롭힘의 일종인 태움의 원인으로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의 과중함이 부각되었다. 우리나라 간호사는 인구 1,000명당 등록 간호사 수가 5.9명, 활동 간호사 수가 2016년 3.5명으로 OECD평균 9명에 비해 절대적으로 수가 부족하다(OECD, 2017).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간호사 인력 확보를 위해 간호학과 입학 정원을 꾸준히 증가시켰으나(보건복지부, 2017), 활동 간호사 수는 2016년 간호사 면허 등록자의 50.6%에 불과하며, 49.4%가 유휴 간호사로 현재 의료기관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 OECD Health data에서도 간호사 1명당 담당 환자 수는 미국 5명, 일본 7명인에 비해 한국은 15~20명으로 집계되었다(크리스천투데이, 2018).

2016년도 종합병원 수술실 간호사가 업무의 과중함 때문에 자살을 하였고(연합뉴스, 2016년 6월 21일), 서울 대형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6개월 근무한 신규간호사가 자살 하였다(프라임경제, 2018년 2월 19일). 간호사의 자살 이후 간호사의 태움 문화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국회에서는 '태움의 악습을 끊자는 내용의 법 개정'에 나섰다(국회의원 개정법률안, 2018). 이러한 문제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때 간호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간호조직에 대한 문제점, 의료서비스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김세향, 이미애, 2014). 병원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의 역할은 임상현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간호사들은 병원에서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에 직면할 위험이 많으며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업무 속에서 항상 긴장하

고 작은 실수도 용납하기 힘든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신입 간호사들의 경우 이러한 상황 자체가 큰 부담과 스트레스로 작용할 것이다(정선화, 이인숙, 2016).

병원 간호사 교육은 선배 간호사가 후배 간호사를 교육시키는 시스템으로서 1:1로 간호실무를 가르쳐주고 적응을 도와주는 프리셉터쉽을 병행하며 도제식으로 운영되고 있다(Carven HL, Broyles JG, 1996). 이러한 이유로 교육과정 중에 인격을 손상시키는 언어폭력이나 신체적, 심리적 괴롭힘을 수시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윤주, 이미형, 2014).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간호사는 40.9%에 달했다(대한간호협회, 2017). 따라서 간호사들이 가지는 심리적 부담감은 다른 직업에 비해 더 클 수밖에 없다(정선화, 이인숙, 2016). 특히,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일을 하면서 심리적인 부담과 장시간의 육체적·정신적 노동으로 지친 간호사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더라도 침묵과 폐쇄적인 업무 분위기로 인해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기 쉽지 않다(Bloisi & Hoel, 2008). 또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경우 매순간 긴장된 상태로 업무에 임하고 이러한 상황 자체가 간호사들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간호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 소위 태움 문화는 간호사들에게 자살생각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자살은 자살생각, 자살시도, 자살행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Harwood & Jacoby, 2000). 자살생각은 '자살을 행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나 사고'를 의미한다. '죽고 싶다'는 생각에서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포함된다. 자살시도는 자신을 해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

지고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자살행동은 자기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것으로 생이 끝났음을 의미한다(Harwood et al., 2000). 자살은 한 번 일어나면 자신에게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그 조직,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결과이다(홍예진, 2015). 자살은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지나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며 자살이 미치는 과급효과를 생각할 때도 더 이상 방지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자살은 반드시 예방적으로 개입을 해야 하는 실정이지만 이는 행동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임소선, 2006). 따라서 결과로서 드러나는 자살 행위에 앞서서 자살사고나 생각을 가진 사람을 미리 발견하여 자살에 대한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임소선, 2006).

자살생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살에 대한 원인이 되는 위험요인들에 대해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자살의 원인을 밝혔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직장인들의 우울과 자살과의 관계, 음주와 자살과의 관계(강모성, 전영주, 손태홍, 2008), 고용형태와 자살과의 관계(박세홍, 2009; 이원철, 하재혁, 2011)와 같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극히 소수의 연구에 그치고 있으며, 직장인들의 자살생각과 자살시도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직무 스트레스, 직업문화, 직무환경과 같은 직업 관련한 요인들을 포함한 심리사회적 요인, 개인의 취약성 및 사회경제적 요인, 직업 요인 등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원경숙,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부각된 간호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하여 간호사들

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을 자살사고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가정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간호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생활을 힘들게 하고 이직을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이슈라는 점에서(김근령, 2013; Hutchinson et al., 2010) 이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 자기비난과 자살생각간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병원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과 자살 생각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고, 이를 '자기비난'으로 산정하였다. 자기비난이란 자신에 대한 기준을 높게 설정하여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실패할 경우 좌절감과 무능력감을 느끼는 것으로, 자기비난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과 비판, 인정, 거부 등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아름, 2011). 자기 비난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간호사들은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우울한 정서나 불안감을 쉽게 느끼기 때문에 집단 내 따돌림이나 괴롭힘의 상황을 더 크게 지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김정남(2015), 최윤영 등(2013)의 연구에서도 자기비난은 패배감을 통해 자살생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자기비난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자주 비교하고,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며,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작은 실수에도 부정적인 정서에 자주 빠지고 감정의 기복도 심하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자기비난은 개개인에게 극심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유발함으로써 결국은 자살생각을 촉발하게 되는 것이다(고은영, 2013). 선행연구에서도 자기비난 성향이 강한 사람은 자살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할 것이므로 자기비난과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 한 바 있다(윤명숙, 이희정, 2013). 고은영(2013)은 사회 부과 완벽주의와 내현적 자기애가 자기비난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자기비난을 많이 할수록 패배감을 자주 느끼며, 실패를 자기 가치와 동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나 자존감 상실 이후에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느낀다고 하였다(성경주, 김재철, 2016). 이러한 자기비난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유발시켜서 결국 자살 생각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고은영, 2013). Baumeister (1990)는 개인의 욕구좌절이 심리적 고통을 동반할 때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살생각의 관계

한편, 완벽주의는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Dunkley, Zuroff & Blankstein, 2006; Taranis & Meyer, 2010), 특히 자살생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상미, 이승연, 2008; 여환홍, 백용매, 2010; Hewitt & Flett, 1991).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외래환자와 대학생を対象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가 자살사고와 정적 상관관이 있었고 대학생의 부적응적 완벽주의는 우울, 자기비난을 매개로 자살사고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완벽주의와 자살생각의 관계가 발견된 바 있다(최바울 등, 2011). 육성필(2002)은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를 경험한 집단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식이나 문제 대처능력이 낮았으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특성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 자기비난과 사회부과 완벽주의와의 관계

완벽주의의 특성은 자기비난과 관련된다. 자기에 대한 기대가 높고, 완벽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자기비난에 대한 요구는 더 거세진다고 하였고(남기숙, 2009) 자기비난은 사회 부과 완벽주의, 실수에 대한 염려 및 불안과 높은 상관관을 나타내었으며(Dunkley, Blankstein, Masheb, & Grilo, 2006), 완벽주의 가운데에서도 특히 부적응적인 완벽주의를 잘 설명하고 있다(Trumpeter, Watson, & O'Leary, 2006). 이렇듯 자기비난은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같은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내는데, 완벽주의와 자기비난 모두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비난을 더 많이 하며,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더 많이 주의를 집중함으로써(손은정, 2011) 우울이 높아진다는 것이다(Thompson & Zuroff, 2004; Sarah & Sian, 2009). 특히나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큰 사람들은 성취나 결과에 쉽게 만족하지 못하고 타인의 인정과 승인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들이 만족스런 성취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경우 자기비난을 하게 된다.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일 경우 그 원인을 자기의 잘못으로 돌리며 자기비난을 하게 되고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한다는 것이다(홍경화, 홍혜영, 2011).

#### 자기비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비난이 모두 높은 경우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은영, 2013).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은 타인이 자신에 대해서 높은 기대와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 자신이 거부될 거라고 생

각한다(Hewitt et al., 1991). 이들은 타인과 사회의 인정을 받는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무기력, 불안, 우울감을 느끼게 되고, 심하면 자살생각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전명임, 2009). 사회부와 완벽주의 뿐만 아니라 자기비난이 높은 사람들도 스트레스에 취약하며 외부와의 소통보다는 자살을 선택할 위험이 증가한다고 하였다(최윤영 등, (2013). 이해선 등(2012)은 자살 행동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과도하게 높은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자기비난을 많이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대학생의 자살행동 기저에 완벽주의적 경향성과 자기비난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부와 완벽주의와 자기비난 간의 이론적 관련성을 전제로 할 때, 자기비난 수준과 사회부와 완벽주의 성향 모두가 매우 높게 나타날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자살생각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사회의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남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더 완벽해 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김이영, 어윤경, 2018). 이러한 현실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으로, 이들로 하여금 부적응적인 완벽주의 성향인 사회부와 완벽주의를 추구하게 만들고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 큰 압박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전제 하에 간호사들의 자살생각을 탐색하는데 있어 직장 괴롭힘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은 물론 자기비난과 사회부와 완벽주의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비난이 클 경우 자살생각이 커지지만, 자신의 수행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타인의 승인을

쫓으며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고 스스로를 덜 압박할 수 있다면 자살생각을 덜 할 수 있으리라는 가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비난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강화 또는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사회부와 완벽주의를 조절변인으로서 설정하였다.

###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과 자살생각

한편, 사회부와 완벽주의는 개인 내적인 성격 특성이므로 자살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변인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완벽주의 성향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학업이나 일의 동기를 높여 주거나 수행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결과도 있었다(허정희, 2006). 배인선(2004)의 연구에서는 사회부와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무엇인가 요구한다는 것은 친밀감과 신뢰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배인선, 2004). 이렇듯 완벽주의 성향이 높더라도 어떤 사람은 적응적인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부적응적인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vulnerability-stress model)로 설명 가능하다(원호택, 2001).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에서는 자살의 원인을 개인의 특성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한다. 즉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은 환경에서 발생된 스트레스에 견디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고통과 어려움을 느끼거나 자살 할 가능성이 높으나, 취약성 요인이 적은 사람은 스트레스가 심해도 그것을 잘 극복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모델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가 자살관련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준다(권석만, 2007). 환경적 변수

인 스트레스는 자살관련 행동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서 오래 전부터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는데, 스트레스가 높은 생활 사건을 겪으면 사람들은 자살 관련 행동을 더 많이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하정희, 안성희, 2008). 이와 같이 스트레스가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명백하나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살을 시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정주리, 2015). 그러므로 환경적 변수인 스트레스가 자살행동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개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차이가 있으며 스트레스가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개인의 특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정주리,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이 클수록 자기비난 정도가 커짐으로서 자살생각에 이르게 되지만, 간호사들의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의 높고 낮음에 따라 자기비난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가 달라질 것으로 가정하고 이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즉, 자기비난의 정도가 심리사회적 적응을 예측하기 때문에(Zuroff, Koestner, Powers, 1994) 자기비난이 클수록 자살생각도 커질 수 있으나 개인의 성향인 사회부과 완벽주의 정도에 따라 자살생각은 달라

질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직장 내 괴롭힘과 자살생각간의 관계에서 자기비난을 매개로 자살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직장 내 괴롭힘과 자살생각 간의 관련성을 살펴봄과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기비난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 직장 내 괴롭힘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조절된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간호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살펴본은 물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자기비난과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 과정을 규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간호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의 위험성을 밝힘은 물론 직장 내 괴롭힘에서 자살생각에 이르기까지의 심리적 과정을 조명함으로써, 자살생각을 줄일 수 있는 대안 마련은 물론 추후 보다 긍정적인 간호환경의 조성을 돕고 다양한 개선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 모형을 토대로 한 병원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자기비난, 사회부과 완벽주의, 자살생각 등이 어떠한 형태로 상호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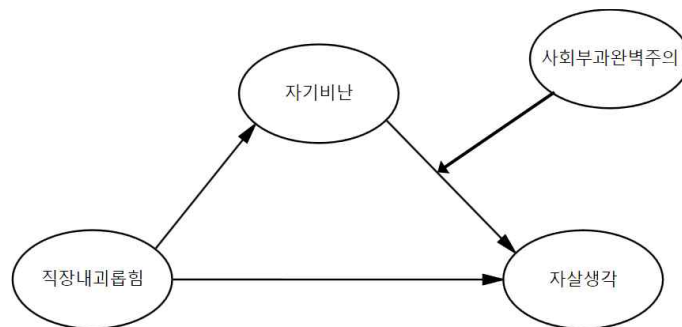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하였다. 가설 1. 자기비난이 직장 내 괴롭힘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2. 사회부와 완벽주의는 자기비난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 3. 직장 내 괴롭힘이 자기비난을 통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사회부와 완벽주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일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의 자료 수집은 서울소재의 병원에 근무하는 300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근무 개월 수는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간호부장이나 수간호사 등의 관리자 직급은 제외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였으며, 임상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및 직접 조사를 통해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총 245부가 회수되었다. 온라인이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4부를 제외하고 총 241부를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온라인 조사와 직접 조사를 통한 변인 간 동질성 검사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 시 온라인 조사와 직접조사에 응답한 모든 설문 결과를 함께 사용하였다.

### 측정도구

#### 직장 내 괴롭힘 척도(Workplace Bullying in Nursing-Type Inventory; WPBN-TI)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은 이윤주(2014)가

개발한 도구로 Workplace Bullying in Nursing-Type Inventory(WPBN-TI)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6문항으로 3개의 하위영역 즉 언어적 공격 10문항, 부적절한 업무부여 4문항, 신체적 위협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는 상대방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자주 나를 무시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등의 문항으로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의 범위는 16~64점으로 점수가 높게 측정될수록 간호사의 괴롭힘 노출 경험이 많음을 의미하며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91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다.

#### 자살생각 척도(Scale for Suicide Ideation, SSI)

자살생각은 Beck, Kovacs와 Weissman(1979)이 개발한 Beck의 자살생각척도(Scale for Suicide Ideation, SSI)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SSI는 신민섭, 박광배(1990)가 변형시킨 것으로, 총 19문항으로 '나는 사는 것이 지겹고 정말 죽어 버리고 싶다' 등 3점 척도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각 문항은 0-2점까지 채점되며 총점은 0~38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광배와 신민섭(1990)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7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92 나타났다

#### 자기비난(Depressive Experiences Questionnaire: DEQ)

자기비난을 측정하기 위해 Blatt, D'Afflitti와 Quinlan(1976)이 개발하고, 조재임(1996)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우울경험질문지(Depressive Experiences Questionnaire: DEQ)를 사용하였다. DEQ는 의존성 22문항, 자기비난 22문항, 효능

감 22문항으로 총 6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맞춰 자기비난 22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나의 가치에 맞추어 살지 못하면 나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진다' 등의 문항으로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 범위는 22~15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비난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조재임(1997)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3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 사회부과 완벽주의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서, Hewitt 등(1991)이 개발한 다차원적인 완벽주의 척도를 한기연(1993), 홍혜영(1995) 등이 번역하고 김연수(1998)가 재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맞춰 완벽주의의 하위 3가지 차원 중 '사회부과 완벽주의'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가 어렵다' 등의 문항으로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15~10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 성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한기연(1993)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3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77로 나타났다.

### 자료 분석

본 연구에 대한 분석방법은 Spss 22.0, Amos 20, Hayes(2013)가 제시한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했으며, 변인별 평균,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항목 척도 간의 신뢰성을 *Cronbach's α*계수에 의해 살펴 보았다. 둘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 모형의 적합도와 요인부하량을 확인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적합도 지수로  $\chi^2$ 검증과 CFI(Comparative fit index), TLI (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을 사용하였다. 셋째,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자기비난을 통해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1986)에 의해 제시된 매개효과의 분석 절차에 따라 3단계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3)가 제안한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준에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자기비난을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이 조건적 간접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 결 과

###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들의 93퍼센트가 여성이었고, 2-30대가 약 84퍼센트를 차지하였다. 근무 경력은 5년 미만이 약 50퍼센트를 차지하였고, 5년에서 10년 사이의 경력이 약 40퍼센트를 차지하였다. 아울러, 직위는 일반 간호사들이 77.6퍼센트를 차지하였고, 주임간호사는 22.4퍼센트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대졸이 83.4퍼센트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학원 졸업 전문대 졸업이 각각 9.5퍼센트, 7.1퍼센트로 나타났



다. 그밖에 결혼 유무, 종교, 근무하는 의료기관 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기술통계

전체 척도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우선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은 자기비난( $r=.46, p<.01$ ), 사회부과 완벽주의( $r=.37, p<.01$ ), 자살생각( $r=.32, p<.01$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기비난과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기비난은 사회 부과 완벽주의( $r=.58, p<.01$ ), 자살생각( $r=.51, p<.01$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자기비난을 더 많이 하며, 자살 생각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자살생각( $r=.29, p<.01$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후 Process Macro 모형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측정모형의 적합성 검증을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하였다. 요인분석모형과 분석 자료의 적합도 검증을 위해  $\chi^2$ 검증치, CFI, TLI, RMSEA를 사용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3>과 같이  $\chi^2$ 은 126.927( $df=48, p<.001$ ), TLI=.95, CFI=.964, RMSEA=.083으로 나타나 모형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론 변인들을 지표 변인들이 적절하게 측정하는 것으로 드러나 확인적 요인분석에 의해 타당도를 검증한 바, 앞서 고찰한 신뢰도 또한 양호하여 측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241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16	6.6%
	여	225	93.4%
	계	241	100.0
연령(세)	20대	107	44.4%
	30대	95	39.4%
	40대 이상	39	16.2%
	계	241	100%
결혼유무	유	106	44%
	무	135	56%
	계	241	100%
종교	유	120	49.8%
	무	121	50.2%
	계	241	100%
총 근무경력	1년 미만	11	4.5%
	1-5년 미만	109	45.2%
	5-10년 미만	55	22.9%
	10-15년 미만	39	16.2%
	15년 이상	29	11.2%
계	241	100%	
최종학력	전문대졸	17	7.1%
	대졸	201	83.4%
	대학원졸	23	9.5%
	계	241	100%
직위	일반간호사	187	77.6%
	주임간호사	54	22.4%
	계	241	100%
의료기관유형	1차병원	15	6.2%
	2차병원	99	41.1%
	3차병원	125	51.9%
	결측값	2	.80%
	계	241	100%

표 2.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N=241

구분	1	1-1	1-2	1-3	2	3	4	4-1	4-2	4-3
1. 직장 내 괴롭힘	1									
1-1 언어적 공격	.98**	1								
1-2 부적절한 업무부여	.92**	.86**	1							
1-3 신체적 위협	.73**	.64**	.61**	1						
2. 자기비난	.46**	.46**	.43**	.27**	1					
3. 사회부과 완벽주의	.37**	.36**	.36**	.26**	.58**	1				
4. 자살생각	.32**	.32**	.27**	.26**	.51**	.29**	1			
4-1 자살욕구	.29**	.29**	.24**	.26**	.53**	.31**	.97**	1		
4-2 자살태도	.33**	.34**	.28**	.25**	.47**	.26**	.94*	.85**	1	
4-3 자살준비	.24**	.24**	.19**	.20**	.33**	.16*	.83**	.77**	.69**	1
평균	2.28	2.36	2.41	1.61	3.73	4.01	.28	.27	.34	.16
표준 편차	.71	.76	.75	.79	.98	.73	.34	.38	.36	.35
왜도	.40	.23	.13	1.48	.01	-.09	1.55	1.41	1.20	2.26
첨도	-.30	-.58	-.37	1.68	-.33	.41	1.97	1.23	1.12	4.76

주. \*  $p < .05$ , \*\*  $p < .01$

표 3. 측정모형의 적합도

$\chi^2$	df	TLI	CFI	RMSEA
126.927	48	0.95	0.964	0.083

정도구들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자살생각에서 자기비난의 매개효과 검증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직장 내 괴롭힘이 종속변인인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beta=.319, t=5.206, p<.001$ ). 즉, 직장 내 괴롭힘이 높을수록 자살생각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직장 내

괴롭힘이 매개변인인 자기비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beta=.456, t=7.915, p<.001$ ).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높을수록 자기비난의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3단계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통제된 상태에서 매개변인인 자기비난이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462, t=7.433, p<.001$ ). 또한 3단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 $\beta=.109, t=1.746, p>.05$ ), 자기비난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S.E)	검정통계량 (C.R.)	
언어적 공격	←	직장 내 괴롭힘	1	0.954		
부적절한 업무부여	←	직장 내 괴롭힘	0.927	0.899***	0.047	19.638
신체적 위협	←	직장 내 괴롭힘	0.736	0.672***	0.059	12.418
자기비난1	←	자기비난	1	0.922		
자기비난2	←	자기비난	0.993	0.87***	0.048	20.873
자기비난3	←	자기비난	1.093	0.942***	0.043	25.332
사회부과 완벽주의1	←	사회부과 완벽주의	1	0.801		
사회부과 완벽주의2	←	사회부과 완벽주의	1.129	0.78***	0.095	11.929
사회부과 완벽주의3	←	사회부과 완벽주의	1.309	0.801***	0.107	12.193
자살욕구	←	자살생각	1	0.975		
자살태도	←	자살생각	0.843	0.872***	0.04	21.227
자살준비	←	자살생각	0.754	0.789***	0.044	17.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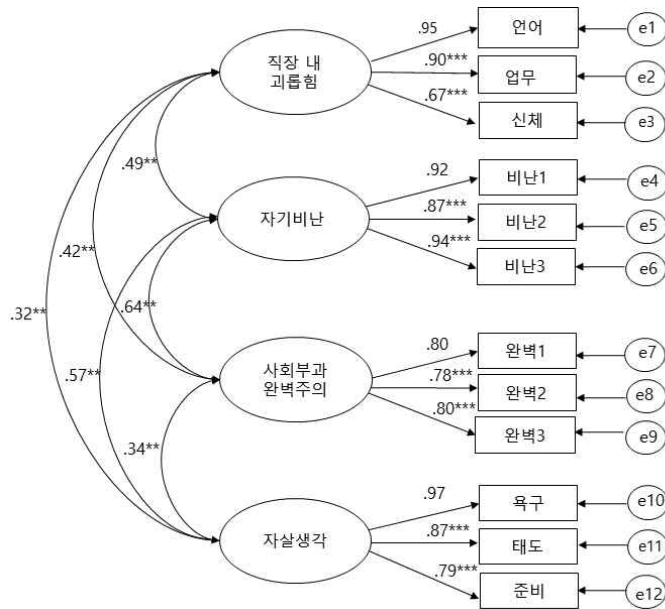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형: 각 변인들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표 5. 직장 내 괴롭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비난의 매개효과 검증

N=241

	독립변수	종속변수	비 표준화계수		$\beta$	$t$	$R^2$	$F$
			$b$	$SE$				
1단계	직장 내 괴롭힘	자살생각	.155	.03	.319	5.206***	.102	27.104***
2단계	직장 내 괴롭힘	자기비난	.632	.08	.456	7.915***	.208	62.642***
3단계	직장 내 괴롭힘	자살생각	.053	.03	.109	1.746	.271	44.25***
	자기비난	자살생각	.162	.022	.462	7.433***		

주.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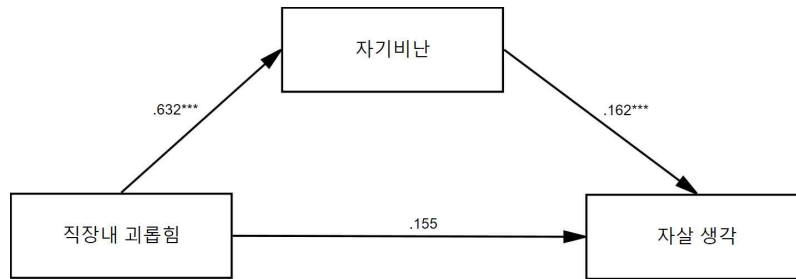


그림 3.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비난의 매개모형

도출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부트스트래핑 재추출 표본 수는 5,000개였고,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매개효과의 하한 값은 .066, 상한 값은 .148로, 95% 신뢰구간에서 0의 값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기비난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 완전

매개임을 알 수 있다.

자기비난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조절효과 검증

자기비난이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상호작용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자기비난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투입하였으며, 3단계에서 자기비난과 사회부과 완

표 6. 자기비난의 매개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래핑 결과

변수	Effect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자기비난	.102	.020	.066	.148

주. boot L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하한 값

boot ULCI=boot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내에서의 상한 값

표 7. 자기비난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조절효과 검증  $N=241$

준거변인	예측변인	비 표준화계수		$\beta$	$t$	$R^2$	$\Delta R^2$	$F$	$\Delta F$
		$b$	$SE$						
	자기비난	.179	.019	.512	9.205***	.262	.262	84.726***	
	자기비난	.182	.024	.52	7.591***	.262	0	42.214***	.042
	사회부과완벽주의	-.007	.032	-.014	-.205				
자살생각	자기비난	.182	.024	.521	7.684***				
	사회부과완벽주의	-.012	.032	-.025	-.364	.28	.018	30.747***	6.029*
	자기비난 × 사회부과완벽주의	.056	.023	.136	2.455*				

주. \*  $p < .05$ , \*\*  $p < .01$ , \*\*\*  $p < .001$

벽주의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을 때,  $R^2$ 의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전체 설명량은 28%로 전 단계와 비교하여 2%만큼 설명량이 증가하였다( $R^2 = .28$ ,  $\Delta R^2 = .02$ ,  $\Delta F = 6.03$ ,  $p < .05$ ). 즉 자기비난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부과 완벽주의에 의해 조절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준에 따른 자살생각에 대한 자기비난의 단순회귀선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Hayes(2013)의 Macro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에서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낮은 집단의 경우 단순회귀선은

$b = .141$ ( $t = 4.908$ ,  $p < .001$ )으로 정적으로 유의하고,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은 집단의 경우 단순회귀선은  $b = .223$ ( $t = 7.673$ ,  $p < .001$ )으로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자기비난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더 많이 경험하는데,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에서 자살생각이 유의미하게 더 높아지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조절변수의 어떤 조건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를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았다. West와 Aiken(1991)은 조절 변인이 연속형 일 경우, 조절변수의 특정 값(평균값과 평균값의  $\pm 1$  표준편차)의 상호작용 효과를 제시하도록 권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분석된 그래프를

표 8.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준에 의한 단순회귀선의 유의성 검증 결과

		$b$	$SE$	$t$	boot LLCI	boot ULCI
사회부과 완벽주의	M-1SD	.141	.028	4.908***	.084	.198
	Mean	.182	.023	7.693***	.135	.229
	M+1SD	.223	.029	7.673***	.165	.280

주.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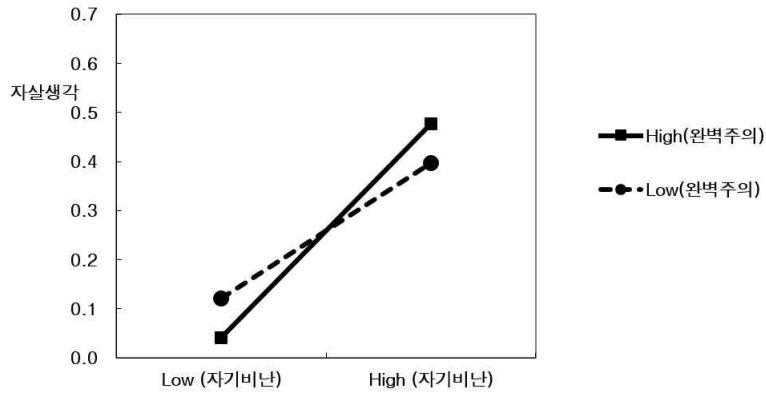


그림 4. 자기비난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조절효과

[그림 4]로 제시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 자기비난,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Hayes (2013)가 제시한 Process Macro(Model 14 사용)를

활용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회귀분석을 통하여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에 대하여 독립변수인 직장 내 괴롭힘과 조절변수인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상호작용 효과가 없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자기비난을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

표 9. 직장 내 괴롭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비난에 의한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N=241

변인	종속변수 : 자기비난		
	b	SE	t
상수	-1.437	.190	-7.558***
직장 내 괴롭힘	.632	.080	7.915***
변인	종속변수 : 자살생각		
	b	SE	t
상수	.148	.071	2.072*
직장 내 괴롭힘	.049	.030	1.617
자기비난	.170	.025	6.807***
사회부과 완벽주의	-.019	.032	-.599
자기비난 × 사회부과 완벽주의	.053	.023	2.325*

주. \*\*\*  $p < .001$ , \*  $p < .05$

표 10.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결과

매개	사회부과 완벽주의	<i>b</i>	<i>SE</i>	<i>boot</i> LLCI	<i>boot</i> ULCI
자기비난	M-1SD	.083	.083	.049	.127
	Mean	.107	.107	.071	.155
	M+1SD	.131	.131	.085	.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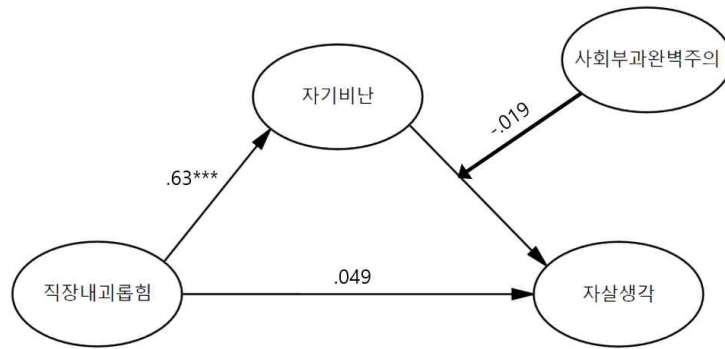


그림 5. 조절된 매개효과 모형. \*\*\*  $p < .001$

부과 완벽주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대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매개변인인 자기비난을 통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인 직장 내 괴롭힘의 매개효과는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고( $b=.632, p<.001, b=.170, p<.001$ ), 자살생각에 대한 자기비난과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053, p<.05$ ). 이는 매개변수인 자기비난을 통한 매개 효과가 조절변수인 사회부과 완벽주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뜻한다.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 신뢰 구간을 사용하여 조건적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완벽주의가 M+1SD 집단에서는 95% 신뢰구간 내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역시 M-1SD 집단에서도 95% 신뢰구간 내에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완벽주의가 M+1SD인 집단은 집단 내 괴롭힘이 자기비난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자살 생각을 증가시키는 정도가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낮은 집단에 비해 높음을 의미한다.

## 논 의

본 연구는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자기비난, 사회부과 완벽주의,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여 자살생각을 줄이고 긍정적인 간호환경을 조성하도록 돕는 중재방

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최근 간호사의 태움 문제로 인해 자살하는 간호사들이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간호의 질 저하, 이직률 증가,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자 조직과 국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에서,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특성들을 밝혀보고자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자기비난, 사회부과 완벽주의, 자살생각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각 변인들 간에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자기비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자살생각과 밀접하게 유의한 관련이 있는 변인들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이 자살생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와 친구들의 따돌림과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생각이 높아짐을 의미한다(윤성호, 2010). 신상수(2013)의 연구에서도 우울감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개인의 정신건강특성은 자살생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의 경험이 많을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괴롭힘을 많이 경험할수록 자살생각도 높아진다는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한다(Klomek et al., 2008).

둘째,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자기 비난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자기비난은 직장 내 괴롭힘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장 내 괴롭힘의 경험이 많고 강도가

심할수록 자기비난을 더 많이 하게 되어 결국은 직무 만족도도 떨어지고 이직의 가능성도 높으며, 심하면 자살생각까지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의 경험정도가 클수록 자기비난이 높아짐으로서 그 결과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으며, 대인관계에서의 만족도도 낮고, 우울, 불안 등 여러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정중진, 2012) 피해자들은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좌절을 하게 되고 그 원인을 외부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자기비난을 하게 된다. 자신에 대한 기대가 높고 일의 수행에 완벽해지려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쉽게 자기비난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며 심하면 자살생각까지 하게 되며(김정미, 조현재, 2009), 자기비난 성향이 클수록 패배감 또한 커짐으로서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김효창, 손영미, 2006; 김효창, 2006; Pompili et al., 2010; Watt and Sharp, 2001). 선행연구에서도 자기비난은 내면화된 수치심을 매개로 하여 자살사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민철, 박은정, 김은하, 2016).

여기서 자기수용은 자기비난과 반대되는 용어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장점이나 약점, 신체적인 조건이나 욕구, 우울, 불안, 공포 등의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현상을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임전욱, 장성숙, 2012).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기수용, 자기위로능력, 자기자비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적인 상황을 경험할 때 자기비난을 하기 보다 자기수용을 하는 경험은 자살생각을 감소시켜 줄 것



이다. 때문에 상담 장면에서 자기수용, 자기위로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함으로써 자살생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자기비난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조절효과가 유의함을 발견하였다. 자기비난과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하여,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준에 따라 자기비난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자기비난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수준에 따라 자살생각의 정도가 달라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낮은 사람들에 비해 자기비난이 큰 경우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였다. 즉,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자기비난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완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로 중년의 위기와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조절효과를 보인다는 것이 검증되었다(윤제중, 2017). 고은영(2013)의 연구에서도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자기비난의 과정을 거쳐 심리적 고통을 초래하여 자살위기로 갈 수 있다고 하였으며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에 따라 자살사고의 증가를 예측하였다. 특히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느끼고(이진화, 2006)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유상미, 이승연, 2008; Adkins & Parker, 1996; Hamilton & Schweitzer, 2000)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큰 사람들이 자기비난을 크게 한다면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적다면, 자기비난을 크게 하더라도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큰 사람들에 비해서 자살생각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자기비난의 매개효과가 사회부과 완벽주의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검증한 결과,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이 자기비난을 통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직장 내 괴롭힘이 자기비난을 매개로 하여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되어 자기비난 성향이 있더라도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준을 낮춰주는 개입을 하게 되면 자살생각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부과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사람은 자기비난의 높고 낮음에 따라 자살생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보다 상세하고 경험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자기비난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때,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수준을 낮출 수 있다면, 자살생각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부과 완벽주의 사고를 가진 내담자들이 우울과 불안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때 개입 가능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담 장면과 교육 장면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간호사 대상 직장 내 괴롭힘과 자기비난, 사회부과 완벽주의, 자살생각 간 정적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자살생각을 이해하는 폭을 넓혔다. 지금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또래 괴롭힘과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들은 많이 있었지만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과 자살생각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는 간호사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자살생각을 하는지 그 과정을 확인해 보았고,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수준에 따라 자기비난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는 과정에서 자기비난과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에서 이 네 변인간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가 없는 가운데 이 같은 결과는 간호사들의 자살생각에 대한 상담적 개입을 하는데 있어서 자기비난과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특성을 가진 내담자의 사고와 행동을 예측하는데 발판이 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직장 내 괴롭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비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변인 간 관련성을 밝혔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기비난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이 있지만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특수 분야에서도 자기비난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낸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간호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은 자기비난 수준에 따라 자살생각에 차이가 있다. 이를 통해 자기비난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심을 갖고 특히 이들이 자살생각에 이르지 않게끔 자기비난의 기제를 이해하고 상담에서 자기비난을 자기자비나 자기수용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셋째, 완벽주의를 매개변인으로 다룬 선행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만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여 자기비난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자기비난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생각 수준도 높아지는데,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준에 따라 이러한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자기비난이 증폭될수록 자살생각이 커지지만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준을 낮출 수 있다면 자살생각 또한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자기비난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효과적인 변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비난의 매개효과,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조절효과를 포함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각 변인들을 하나의 모형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간호사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많을수록 자기비난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준이 높을수록 직장 내 괴롭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비난의 매개효과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자기비난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치료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자기비난 성향이 높다고 하더라도 개입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기비난은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통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쳤고,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에 비해 더 자살생각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상담자는 완벽주의의 표면적인 증상의 감소에 초점을 둔 인지행동치료 뿐만 아니라, 완벽주의를 유지하게 하는 개인의 신념과 태도에 초점을 맞

춘 접근이 필요하며, 인지적 재구조화를 통하여 내담자의 부정적인 사고를 감소시켜 자살생각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인지행동치료와 마음챙김접근 등을 통해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비합리적인 사고와 신념을 수정하고, 자기비난적인 사고를 감소시켜주면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자기자비 명상집단과 마음챙김 명상집단은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자기비난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이경란, 2017) 마음챙김이 자기의 부적응적 사고, 행동, 정서를 지각하도록 하여 자기비난 수준이 감소하였다(조현주, 현명호, 2011). 자기자비는 다루기 어려운 정서에 회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적응적 정서조절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문은주, 최혜연, 2015). 또한 자기주장 훈련으로 분노와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하고 않고 건강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상담자는 내담자의 자기비난과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준을 낮춤으로써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돕는 개입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는 자살생각을 다루는데 있어 자기비난과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의미 있는 변인의 하나로서 다뤄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자살사고를 호소하는 간호사들을 상담할 때 자기비난과 사회부과 완벽주의 수준을 탐색하고 평가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자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들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시사한다. 이는 상담과정에서 바꿀 수 없는 환경적인 상황을 다루기보다는 내담자가 느끼는 심리적인 고통을 다루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표본은 서울에 근무 중인 임상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각 변인들을 측정할 때 집단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 또한 표본 수집을 통해 모인 대상자의 수가 한정되어 있어서 간호사 전체의 연구 결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과 표본의 수, 표집 지역을 확대하여 일반화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간호사의 집단 내 괴롭힘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자기비난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횡단적인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를 통해 본 연구결과를 좀 더 명확하게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정보를 주관적으로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면접 또는 실험 관찰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병원의 등급(1차, 2차, 3차)에 따른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병원 규모가 클수록 요구하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간호사들에게 요구하는 역할의 부담 또한 클 것으로 생각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병원의 등급에 따른 조사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문헌고찰을 토대로 하여 최종모형까지 제시하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매개변인으로, 자기비난을 조절변인으로 하는 모형을 고려하거나, 직장내 괴롭힘과 자기비난 간의 관계에서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조절효과 모형을 고려하는 것 모두 문헌 고찰 내용이나 실질적 함의 모두를 고려할 때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추후 연구를

통해 관련지어 확장된 연구가 진행된다면 좋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효창, 손영미 (2006). 노인 자살의 특성과 자살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2), 1-19.
- 김이영, 어윤경 (2018). 대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이 학업몰입에 미치는 영향: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에 의한 사회부과 완벽주의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교육문제연구, 36(4), 151-183.
- 김효창 (2006). 성인 자살의 특성과 자살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1), 15-33.
- 고은영 (2013).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살사고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1), 63-81.
- 강모성, 전영주, 손태홍 (2008). 기혼 중년남성의 직무 및 가족 스트레스와 자살구상. 한국가족관계학회, 3(1), 105-134.
- 김정남 (2015).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자살사고와의 관계: 자기비난과 거부민감성의 매개 효과. 청소년연구, 22(3), 77-96.
- 김정미, 조현재 (2009).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비난 및 의존성의 역할. 한국청소년연구, 20(20), 283-306
- 김세향, 이미애 (2014). 간호사의 이직의도, 감정노동, 의사소통 간의 관계. 간호행정학회지, 20(3), 332-341.
- 김근령 (2013). 신규간호사의 이직결정 경험,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민철, 박은정, 김은하(2016). 자기비난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1(4), 303-316.
- 김연수 (1998). 성취 관련 스트레스 경험 후 완벽주의와 자존감이 우울 발생 및 지속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석만 (2007). 현대 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 남기숙 (2009). 수치심, 죄책감 경험과 대처가 심리 증상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은주, 최해연 (2015). 정서인식명료성과 정신건강의 관계: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2017).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 배인선 (2004). 완벽주의 성향과 자아분화수준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차이.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세홍 (2009). 고용상태 변화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광배와 신민섭 (1991). 고등학교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298-314.
- 성경주, 김재철 (2016). 대학생의 대상관계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4), 473-499.
- 손은정 (2011). 완벽주의, 자기비난, 자기의식, 신체불만족 및 신경성 폭식증 증상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1), 165-183.
- 신상수 (2013).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특성과 지역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진화 (2006). 피아노 전공 대학생의 연주불안에 대한 조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란 (2017). 자기자비명상이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 여대생의 내면화된 수치심, 자기비난, 정서조절곤란에 미치는 효과.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선, 강여정, 김성연, 이지영, 박일, 권정혜 (2012). 대학생의 자살관련생각과 행동의 원인 및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3), 703-728.
- 유상미, 이승연 (2008). 대학생의 스트레스, 부적응적 완벽주의, 자살사고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2), 119-136.
- 이아름 (2011).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 간의 관계: 공격 자의식과 자기비난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환홍, 백용매 (2010). 경계선적 성격특성, 부적응적 완벽주의 및 우울이 자살관련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4), 1047-1066.
- 윤계중 (2017). 중년기 위기와 자살사고의 관계: 완벽주의의 조절효과. 한양사이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원철, 하재혁 (2011). 비정규직과 자살생각의 관련성.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23(1), 89-97.
- 원경숙 (2016). 중소기업 직장인의 스트레스, 우울 및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전옥, 장성숙 (2012). 자기수용 연구의 동향과 제언. 인간이해, 33(1), 159-184.
- 임소선 (2006). 청소년의 소외감, 우울, 삶의 의미와 자살생각과의 관계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육성필 (2002). 자살관련변인의 탐색과 치료 프로그램 개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원호택 (2001). 이상심리학. 서울: 범문사.
- 윤성호 (2010). 자아존중감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윤주, 이은진 (2014). 직장 내 괴롭힘 개념 개발: 병원간호사를 중심으로.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1(1), 57-70.
- 이윤주, 이미형 (2014). 간호사가 지각하는 직장 내 괴롭힘 측정도구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44(2), 209-218.
- 윤명숙, 이희정 (2013). 직장 내 따돌림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1(3), 33-62.
- 조현주, 현명호 (2011). 자기비판과 우울관계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와 자기자비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1), 49-62.
- 정선화, 이인숙 (2016). 간호사의 태움 체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25(3), 238-248.
- 정종진 (2012). 생태학적 측면에서 본 학교폭력의 유발 요인. 초등상담연구, 11(3), 331-350.
- 전명임 (2009).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우울,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주리 (2015).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2), 325-349.
- 조재임 (1996). 우울의 두 차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바울, 고은영, 이소연, 이은지, 서영석 (2011). 부적응적 완벽주의, 무망, 우울, 심리적 극통 및 자살사고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693-716.
- 최윤영, 조현주, 권정혜, 이종선 (2013). 우울취

- 약성과 자살사고의 관계. *인지행동치료*, 13(3), 423-443.
- 하정희 (2006). 비합리적 사고와 완벽주의의 기능.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하정희, 안성희 (2008). 대학생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스트레스, 대처방식, 완벽주의, 우울, 충동성의 구조적 관계모형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149-1171.
- 홍예진 (2015). 취업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 경험이 있는 취업 준비 대학생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경화, 홍혜영 (2011).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청소년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 연구*, 18(5), 291-320.
- 홍혜영 (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 효능감, 우울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기연 (1993). 다차원적 완벽성: 개념, 측정 및 부적응성과의 관련성.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dkins, K. K., & Parker, W. (1996). Perfectionism and suicidal preoccupation, *Journal of Personality*, 64(2), 529-543.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 US: Sage Publication, Inc.
- Blatt, Sidney J. D'Afflitti, Joseph P. Quinlan, Donald M. (1976). Experiences of depression in normal young adul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85(4), 383-389.
- Baumeister, R. F. (1990).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ogical Review*, 97(1), 90-113.
- Beck, A. T., Kovacs, M., & Weissman, A. (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2), 343-352.
- Bloisi, W. & Hoel. H. (2008). Abusive work practices and bullying among chefs: a review of the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27(4), 649-656.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255.
- Carven HL, Broyles JG. (1996). Professional development through preceptorship. *Journal of Nursing Staff Development: JNSD*, 12(6), 294-299.
- Dunkley, D. M., Zuroff, D. C., & Blankstein, k. R. (2006). Specific perfectionism components versus self-criticism in predicting maladjustmen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0(4), 665-676.
- Dunkley, D. M., Blankstein, K. R., Masheb, R. M., & Grilo, C. M. (2006). Personal standards and evaluative concerns dimensions of "clinical" perfectionism.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1), 63-84.
- Hutchinson, M., Wilkes, L., Jackson, D., & Vickers, M. H. (2010). Integrating individual, work group and organizational factors: Testing a multidimensional model of bullying in the nursing workplace. *Journal of Nursing Management*, 18(2), 173-181.
- Harwood, D., & Jacoby, R. (2000). Suicidal

- behavior among the elderly. *Psychiatric Clients of North America*, 31(2), 333-356.
- Hamachek, D. E. (1978). Psychodynamics of normal and neurotic perfectionism. *Psychology: A Journal of Human Behavior*, 15(1), 27-33.
- Hewitt, P. L., & Dyck, D. G. (1986). Perfectionism, stress, and vulnerability to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 Research*, 10(1), 137-142.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self and social context: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456-470.
- Hayes, Andrew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 Hamilton, T., & Schweitzer, R. D. (2000). The cost of being perfect: Perfectionism and suicide ideation in university students.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4(5), 829-835.
- Klomek, A. B., Sourander, A., Kumpulainen, K., Piha, J., Tamminen, T., Moilanen, I., Almqvist, F., Gould, M. S., (2008). "Childhood bullying as a risk for later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Finnish male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09(1), 47-55.
- Pompili, M., Serafini, G., Innamorati, M., Dominici, G., Ferracuti, S., Kotzalidis, G. D., et al. (2010). Suicidal behavior and alcohol abus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7(4), 1392-1431.
- Sarah, C., & Sian, C. (2009). Perfectionism, self-criticism and maternal criticism: A study of mothers and their childr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7(4), 321-325.
- Taranis, L., & Meyer, C. (2010). Perfectionism and compulsive exercise among female exercisers: High personal standards or self-critic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9(1), 3-7.
- Thompson, R., & Zuroff, D. C. (2004). The levels of self-criticism scale: comparative self-criticism and internalized self-critic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2), 419-430.
- Watt, T. T., & Sharp, S. F. (2001). Gender differences in strains associated with suicidal behavior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3), 333-348.
- Zuroff, R., Koestner, & Powers, T. A. (1994). Self-criticism at age: A longitudinal study of adjustment,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8(4), 367-385.
- 1차원고접수 : 2019. 04. 18.  
심사통과접수 : 2019. 06. 05.  
최종원고접수 : 2019. 06. 28.

## The Effect of Workplace Bullying on Suicidal Ideation of Hospital Nurses: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Self-Criticism

Choi, Mi Ra

Ha, Jung Hee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wa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ritic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place bullying and suicidal ideation of hospital nurses, as well as to verify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on the relationships among the three variables. A survey was conducted to 241 hospital nurses who live in Seoul, Korea.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22.0, Amos 20, and Process Macro.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ignificant correlation were found among all variable.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full mediation effect of self-criticism on the pathway from workplace bullying to suicidal ideation was significant. Thir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played the moderating rol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riticism and suicidal ideation. Fourth,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was found significa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criticism and suicidal ideation.

*Key words* : nurse, workplace bullying, self-criticism,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suicidal ideation